

휘발유, 하락세 전환 “짙음”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무연 보통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0.7원 내려 1921.0원을 나타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2010년 10월 첫째 주 이후 26주 연속 상승했으나 정유4사의 공급가격 인하 방침(4월7일)에 따라 4월 둘째 주에 하락했다.

이후 상승(4주)과 하락(4주)을 반복했으나 3주 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7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됐다.

자동차용 경유도 리터당 0.9원 내려간 1745.5원으로 3주 연속 상승세가 멈추었고, 실내등유는 리터당 1.7원 내린 1351.0원으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주유소의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 변화

(단위: 원/ℓ)

구 분	2010	2011/5	6/3	6/4	6/5	7/1	등 락
보통 휘 발 유	1,710.4	1,938.5	1,912.0	1,918.4	1,921.7	1,921.1	↓ 0.7
자 동 차 용 경 유	1,502.8	1,772.9	1,731.2	1,741.3	1,746.4	1,745.5	↓ 0.9
실 내 등 유	1,076.0	1,362.4	1,351.5	1,353.2	1,352.7	1,351.0	↓ 1.7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1994.2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1940.7원), 경기(1932.7원)가 평균보다 높았고, 제주(1896.1원), 광주(1901.2원), 전남(1901.8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6월 다섯째 주 정유기업의 공급가격은 최근 2-3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 약세가 반영되면서 대폭 떨어졌다.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대비 리터당 19.4원 떨어진 857.2원, 경유는 36.7원 하락한 929.2원을 나타냈다.

<화학저널 2011/07/11>